

북한산성 역사문화프로그램 교육 자료

제1지점

장소 : 만남의 장소(분소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북한산국립공원에 근무하는 한창준입니다. - 밝고 활기차게 인사

일정소개 및 자연해설 테마(주제) 설명

오늘 우리가 탐방하실 코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서문을 지나서 증성문 그리고 역사유물이 산재되어 있는 총융사선정비와 국가보물이 있는 태고사의 원증극사탑비 그리고 행궁지 등으로 탐방하시겠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개(북한산소개)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해는 1983년 4월 2일에 우리나라의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의 특징은 도심 속의 떠있는 자연의 섬으로 화려한 경치와 잘 보전된 자연,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해주는 역사유물 곳곳이 산재되어있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근접의 국립공원입니다.

☆ 전국립공원소개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국립공원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첫국립공원이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67년 처음시기에는 건설부에서 공원관리청이 되어 공원을 건설위주를 관리 즉 화장실 짓기, 도로내기, 야영장, 대피소 등 시설위주의 공원관리를 하다가 1991년 4월 내무부로 관리기관 이전하여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작업으로 국립공원관리를 환경정책과 연관하여 관리해야한다는 시대적 환경문제를 증대한 사회적인 이슈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업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1998년2월에 환경부로 관리 이전되어 지금까지 오고있습니다.

공원관리역사를 보면 처음 멋모르고 관리하는 건설부에서는 건설위주 내무부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지방관리 위주 근래에서 생태계를 보호하여야한다 요즘은 생태계를 보호도하고 탐방문화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위주입니다.」

「생략가능」

그럼 지금부터 북한산을 탐방하겠습니다.

먼저 산을 입산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산을 등반, 등산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의미는 산을 정복한다라는 의미이고 우리조

산은 산에 입산한다 곧 산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심신단력, 자연과 하나되는 체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편안히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의미로 산을 찾습니다.

☆ 설악산의 K2 설명

☆ 산을 탐방하는 방법

처음 산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산의 전체모습을 보입니다.(곧 사람의 전체모습 보듯이, 교과서의 일 부내용, 글자를 보는게 아니라 책의 목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산의 입구에 산의 전체적인 설명하는 지도와 산속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는 큰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입산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안내간판을 보면 봉오리, 계곡 흐름 형태 등을 보고서 산의 전체 모습을 그릴 정도로 머리 속에 기억해 둡니다)

산에 입산하기 전에 북한산의 주인이 누구지 알고 갑시다. 과연 북한산의 주인은 누구냐?

정부냐, 아니면 산을 찾는 탐방객이나, 아닙니다. 북한산의 자라는 동물, 식물, 바위, 흙등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북한산의 주인입니다. 우리들은 북한산이라는 산을 방문하는 손님이고, 남의 집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나쁜 일은 가급적 삼갑시다.

☆ 북한산의 역사

고구려 시조 주몽 첫째 아들인 유리가 태자로 옹립되자 두아우인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도망하여 한산에 이르러 북아악(북한산)에 올라 살 만한 땅을 찾은 곳이 바로 이산이다.

그래서 비류는 미추(인천지역)으로 온조는 위례(강남)으로 자리를 잡고 처음에는 신하가 10명이어서 십제라고 나라를 정하고 비류가 황폐한 토양으로 죽자 신하를 합하여 백제로 나라 이름을 바꾼다.

삼국시대부터 역사기록을 보면 북한산을 장악하는 나라가 전 국토를 장악하였다. 이는 북한산이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중요한 전략적 요새지이기 때문이다.

백제4대 개로왕 5년(132년)에 처음 북한산성을 쌓은 이래 백제13대 근초고왕(370년)은 수도를 하북위례성(아차산 추정) 옮기고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참살시킴으로 이때가 백제의 군사력이 한반도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이다.

그 후 고구려 20대 장수왕(長壽王)은 475년 남진정책으로 백제 수도 하남위례성을 칠 때 북한산성에 7일 7야의 대접전을 전개하였다. 결국에는 북한산성이 고구려 군에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모두 빼앗기고 급기야 개로왕까지 전사하는 비운 속에 도읍을 웅진(공주)으로 옮기게 되었다.

백제 25대 성왕은 한강 회복을 위해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성지역에서 고구려 군과 싸웠는데 553년 진흥왕 14년 신라군은 한성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북한산성을 장악하였다. 이후 555년 10월 신라의 진흥왕은 친히 북한산성을 순시하고 신라군의 전공을 높이 치하기 위해 비봉에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하고 신라의 영토임을 위시한다. 이후 함경도의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확대되었으며 562년에는 가야국을 멸망시켰다. 661년 5월 신라군과 고구려 군간의 북한산성 전투는 신라 삼국통일의 성

패를 좌우하는 역사적 전투였다. 만일 이때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의 군이 북한산성을 지키는 신라의 동라천(冬陀川)군을 이겼다면 신라는 북한산성의 요새를 상실하게 되어 백제의 부흥군과 고구려군의 말갈군, 일본군의 연합전선이 남북으로 연결되면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동서로 분리되어 대단히 어려운 전세에 휘말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의 북한산성 수비군은 남진하는 고구려의 말갈의 연합군을 맞이하여 필사항전의 결의로 20일간을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싸워 고구려군을 물리쳤던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는 일곱의 요새였던 것이다. 고려 조선에 와서도 전란이 일어날 때마다 북한산성의 중요성은 거론되었던 것이며 1711년(숙종37)에 왕명에 의하여 축성공사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산성에는 삼국시대 유적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 문화유적 설명

국보1호는 승혜문(남대문)이고, 국보 2호는 원각사지10층 석탑 조선15세기로 서울탑골공원에 있다.

북한산에서 가장 오랜 유적은 국보 제3호인 진흥왕순수비였다. 이 비는 승가사 뒤의 비봉 정상에서 있었던 것을 1972년 8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비가 섰던 비봉정상 바위 위에는 진흥왕순수비가 섰던 자리임을 아리는 모방비(표석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진흥왕순수비가 섰던 자리인 비봉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로 하였다.

☆ 북한산의 이름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삼각산(三角山)은 양주 경계에 있는데 화산(華山)이라고도 하며, 신라 때에는 부아산(負兒山), 부아악이라고 하였다. 평강현의 분수령에서 잇달은 봉우리와 첩첩한 골곡을 이루면서 구불구불 돌아 양주 서남쪽에 와서 도봉산이 되고 또 삼각산이 되니 실로 경성의 진산이다.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비류(沸流), 온조(溫祚)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 만한 땅을 찾은 곳이 바로 이 산이다” 라고 하였다.

『북한지(北漢誌)』에서는 “삼각산은 인수봉(人壽峯), 백운봉(白雲峯), 만경봉(萬景峯)의 세 봉우리가 우뚝 서서 깎아 세운 듯한 삼각과 같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인데, 일명 화산(華山) 또는 화악(華嶽)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인수봉에 대한 설명으로 “인수봉은 삼각산의 제1봉이다. 사면이 순 바위로서 깎아질러 섰는데 봉우리 등에 한 바위가 덧붙어서 부아악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다.

부아악은 뽕뽕의 한자어 표기로서 ‘負兒’는 곧 불>뽕의 처음 표기라 생각된다. 부아악은 삼각산의 원래 이름으로서 백제 때부터 불리지다가 고려시대에 삼각산으로 바뀌었다.

고려시대 금석문 자료(원증 국사 탐비 및 중흥사 판자의 명문 등)와 『고려사』 등의 기록에 거의 모두 삼각산으로 표기한 예를 보면 부아악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삼각산이란 산명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아악' 은 곧 '각산(角山)' 의 의미로서 산정에 뿔 같은 3개의 산봉 곧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이 있다고 하여 뒤에 삼각산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일설에는 삼각산의 인수봉 앞에 튀어나온 바위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애를 업고 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붙여진 산명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삼각산의 옛 이름이 화산이었으므로 불(負兒)→화(火)→화(華)로 변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인수봉 앞에 달린 바위의 모양으로 인해 남자의 음낭을 일컫는 '불' 에서 온 산명으로 보기도 하나 삼각산의 형상을 보면 긍정적인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산이라는 명칭은 본래 백제시대 이래의 한강 유역을 뜻하는 행정 지명에서 기원하였고 산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삼국사기』 '백제사' 에 나오는 한산(漢山)과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면 한수이북의 북한산을 뜻하는 한산, 한수 이남의 남한산을 뜻하는 한산, 한수 이북 또는 이남의 어느 큰산을 뜻하는 말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제사' 에서 나오는 한산은 대체로 북한산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백제의 시조 온조가 처음 한강 이북 하북위례성에 도읍하여 정착하였다가 온조왕 14년 한강 이남으로 천도한 뒤 한강 이북의 한산지역을 북한산, 한강 이남의 한산 지역을 남한산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제 2 지점 . 대서문 설명

☆ 성문에 대해서

- 아래에서 설명 -

- 대서문 문루는 일제 말기에 파손된 채 방치되어 오던 것을 1958년 당시 최헌길 경기도지사가 698만환을 들여 문루를 복원하고 우마차가 다니던 오솔길을 확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나무를 달구지에 싣고 새벽부터 서대문 영천에 내다 팔았다.

대서문은 홍예문인데 폭은 3.3m 높이4m이다.

- 홍예문의 좌우에는 누혈(이수형, 석조형)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빗물을 빠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침입을 막기 위해 성문크기와 관계없이 나무문을 2개 달아 여닫도록 하였으며, 목재 판문에는 앞뒤로 철엽을 씌워 화공 등에 대비하였고 천장과 바닥에는 고정시설과 함께 빗장인 장군목을 끼울 수 있게 양쪽 벽면에 큰 홈을 파 놓았다.

- 성문 출입구를 보면 큰 문이나 암문을 볼구하고 내측이 외측보다 상당히 높고 넓게 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문짝의 고정 부분이나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문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내측이 외측보다 폭이 약60cm, 높이 10cm가량 크다.

- 위에서 설명 -

- 육축 위에는 몸을 숨기고 총포를 쏠 수 있는 문루 여장을 10개 두었는데 일반 성벽의 여장과는 달리 한덩어리에 화강암으로 된 평여장이며 총구는 아래로 향한 근총안을 1개씩 둔 것이 독특하다. 총안(20cm× 30cm)이 하나씩 뚫려 있다.

- 성문의 바닥에 초석을 보면 각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대서문과 증성문은 원형, 북문과 대성문은 단주형, 대동문과 대남문은 팔각주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 홍예 형식을 한 대서문(복원), 북문, 대동문(복원), 대성문(복원), 대남문(복원), 증성문에는 문루가 있었던 흔적으로 초석이 남아있으며, 문루는 우진각 지붕으로 단층형식이며 초석은 다같이 10개로 구성 정면 3칸, 측면 2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초석 4개사이에 마루를 설치하였는데 대서문, 대성문의 경우는 나무마루, 대남문은 판석마루로 복원하였다.
- 홍예문 형식은 무지개 형태로 건축학적으로 가장 튼튼하며 문루는 오토바이에 비교설명, 머리에 딱바구니 지고 가는 형태로 설명한다.
- 단청이란 건물에 화려한 색을 칠하는 것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색을 칠할 수 있었던 곳은 3곳에만 가능하며, 일반 건물에 칠하면 국법으로 다스렸다. 첫째는 국왕이 머무는 행궁과 부처님이 머무는 사찰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만 단청을 칠할 수 있었다. 이곳은 왕이 머무른 성문이다. 이 단청은 용의 형상을 대부분 그리는데요.. 예부터 우리나라를 파란용의 나라라고 불렀다. 그래서 왕을 용이라 칭하고 용상, 용안 등으로 칭함. 중국 단청은 다소 어두움, 한국단청은 화려하면서도 가볍지 않고 우아한 특징, 일본의 단청은 적색과 검정색, 황금색이 주조를 이뤄 화려하지는 않다. 단청은 불교 문화의 유입과 유래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전래됨. 단청의 색은 음양오행사상과 관련되어,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다섯 가지를 혼합해사용. 단청 이유 1. 일반건축과 차별로 궁전이나, 법당의 권위를 나타냄 2. 기후변화에 방풍, 방부해등으로 영구적인 보존(약 수백년보존, 임진왜란후 재 도장됨) 3. 기념물로써의 성격부여, 4. 음양오행사상을 중심으로 길흉화복을 기원함. 5. 건축단점을 가림. 그리고 대서문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과의 경계선이다.

○ 북한산성내의 마을

북한산성내에는 하창마을(대서문에서 증성문), 증창마을(증흥사앞 노적사 부근), 의창마을(대성문 주변)의 세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 북한산성 축성 배경

임진왜란(선조)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인조)을 겪고 난 뒤 조정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난이 또 일어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도성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버린 채 서북 지방으로, 이괄의 난 때에는 충청도 공주까지 정처 없이 피란길을 떠나는 수모를 겪었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쟁을 하다가 치욕을 당하였다.

국난을 당할 때마다 도성을 지키지 못한 조정에서는 그동안 믿었던 강화도와 남한산성도 위급할 때에는 신속한 피란처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도성과 가까운 곳으로 새로이 물색한 곳이 바로 북한산이었다. 축성은 조선 선조(宣祖) 때부터 기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숙종 37년에야 북한산

성을 축성하게 되었다.

속종 37년 2월 축성방침을 굳히고 그해 3월에는 구획을 나누어 삼군문에서 축조하도록 결정하였다.

4월3일에 착수된 공역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하였으며, 불과6개월 만인 10월 19일 백운봉, 만경봉, 용암봉, 문수봉, 의상봉, 원효봉, 영취봉 등 북한산의 영봉을 연결하는 석성을 완료하였으며 길이는 7,620보로 약9.7km에 이르렀다.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의 축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직전에 서울 도성을 수축한 경험이 있었고, 삼군문에서 담당케 되었으므로 계획 수립에서 시행까지 치밀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데다 농번기나 장마철에도 중단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축성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삼군문이 구역을 분담하여 쌓게 하였는데, 책임 대상으로 전판서 민진후, 행훈련원도정 김중기를 임명 총괄적인 책임을 맡겼다.

성곽 구조를 쌓았던 인원 약 10만명이었으며, 노약자와 어린이를 제외하면 3.4만명 정도이다.

제 3 지점. 대서문 위 중간탐방로 지점

○ 원효봉, 의상봉의 비교설명

삼국시대의 대사 중에 같은 시대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있었는데, 두 대사는 불교 종사였는데 원효대사는 일반 시민출신이었고, 의상대사는 신라 왕족출신으로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공부하는 형태이고, 원효대사는 서민출신으로 사람이 등글등글한 삶은 산 대사로서 두 대사가 중국의 당나라에 불교공부를 가던 중에 원효대사는 어두운 밤에 길 잃어서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해골 물을 먹고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이세상이 천국일수 있고 지옥일수가 있다. 극락은 자기 마음에 있다. 그래서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이곳 원효봉 밑에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였으며, 그 자리는 지금의 원효암 대응전굴이다. 하물며, 의상대사는 8년의 당나라 불교공부를 하고 와서 불교의 학문에 한 획을 그었으며, 현재 불교의 조계종파의 시조이다. 나중에 깨달을 갖기 위해 원효대사가 있던 건너편인 의상봉 밑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였다는 전설입니다. 원효봉 밑에 자리잡고 있는 원효암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의 대응전과 약사전은 모두가 바위굴로 되어있다.

원효대사는 일반서민들에게 불교문화를 널리 알렸으며, 향후에 신라의 공주사이에 아들 설총을 낳습니다.

중간 설명단체(노적사 주차장 안내표지판)

○ 북한산성 성문갯수, 사찰의 개수,

처음에 성문을 12지지(자축인묘..)를 본따서 12개의 성문을 지키는 만든 후 추가 축성하였고, 사찰은 10천지(갑을병정..)를 중심으로 10개의 사찰을 지었다.

북한산성의 성문갯수는 13개의 성문이 있고 13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3개의 그시대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때에 군사 삼군문(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와 13개사찰의 스님들과 도성을 있

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속전속결 성을 쌓았다.

그 시대에 성을 급히 쌓아야 하는 분위기 (주변국의 압박)과 비밀리에 쌓았다. 그전에 도성을 쌓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신속히 성을 쌓았다.

제 4 지점. 중성문설명

- 중성문은 대서문에서 남동쪽으로 약2km쯤 성내로 들어오면 있다. 중성문은 북한산성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중성문 좌우로 내성같은 성곽이 있다. 성문의 육측부는 폭이 13m쯤 되고 높이는 4.5m쯤 된다. 성문은 홍예문인데 폭은 2.7m이고 높이는 3.3m이다.

성문밖 우측은 의도적으로 성벽을 등굴게 내어 쌓아 일종의 치와 같은 방비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중성문의 서쪽 암벽에 조그만한 방형문이 있는데 이것이 암문이다. 이 암문은 암벽을 그대로 다듬어서 그대로 문벽으로 삼고 그 위에 길이 2.5m 폭 45cm의 장대석을 올려 머리돌로 하였다. 암문의 높이는 183cm, 폭은 235cm, 길이는 300cm쯤 된다. 출입구 바깥쪽으로 장군목을 건너질렀던 방형구멍이 파여 있다. 암문의 서쪽에 개울이 흐르는데 이 개울에는 수문이 설치되었던 자리이다. 중성문의 여장에도 총안이 뚫려있다. 문루는 근년에 복원하였다. 중성문을 건립한 것은 숙종이 1712년(숙종38) 산성내에 완성된 행궁에 들였다가 북한산성의 북쪽 대서문 쪽이 너무 낮아서 적의 공격이 용이한 지형임을 간파하여 성내의 다시 중성문을 건립하고 내성 같은 이중성의 방어시설을 하게한 것이다.

-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여러성이 있지만 대서문 방향에만 중간에 1개의 성이 더 있는데 그 성이 중성문입니다. 왜 대서문 방향만 이중문이 있을까 이 이유는 대서문 뒤편에 행궁 있기 때문이다. 북한산성을 다 쌓고 왕이 순찰행차하였는데 대동문, 대남문 등 다른 성문은 지역이 높아서 쉽게 공격을 못하는데 대서문은 지역이 낮고 행궁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중간에 중성문을 쌓으라는 왕의 어명이 있어 중성문을 쌓았다.

- 중성문 좌측에 암문이 있다. 이 암문의 용도는 첫째, 시신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였고 둘째, 식량을 운반하는 통행로 역할, 셋째는 적군이 오면 측면 공격하는 지역적인 전술역할을 하였다.

- 수문의 역할은 첫째, 수문을 만들어 장기적인 전투시 물을 비축하는 역할 둘째에는 적이 계곡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적을 한번에 쓸어 보내는 역할이다.

하지만 1915년 장마철에 북한산의 가장 큰 홍수로 수문과 행궁등 여러 유물들이 훼손되었다.

○ 선조시대 임진왜란의 밤 할머니 이야기 설명

- 밤 할머니는 실존하였던 이 분입니다.

이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남달랐다. 생김새는 키가 호리호리하고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늘 대단하였다고 한다.

왜군이 갑자기 대군을 앞세워 부산으로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고 선조 25년(1592년)임진 4월에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오시가 30만 대군을 발동하여 부산포에 4월13일 상륙해 파죽지세로 야산을 거쳐서 상주 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이 밥할머니는 단신으로 일어나 앞서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이 강산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 일본이 평양까지 올라갈 때 중국 명나라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여송을 파견해 연합군을 지휘토로 하여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한성을 향해 진격하게 되었는데, 한성을 목전에 두고 선조26년 고양 벽제관 혜음령고애에서 왜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당시 아군 병력이 약2만 명, 일본군이 4만1천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우리 연합군이 대패하고 말았다. 왜군은 이후 전황이 우세하면서도 연일 계속되는 싸움에 지치고 갈증이 몹시 난 상태로 해질 무렵 고양 창릉천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개울이 희부연 색깔이었다. 왜군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물 마시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마침 창릉천 징검다리 앞에서 건성으로 빨래를 하고 있던 밥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물이 뿌연 이유를 물었는데 그녀는 노적을 가르키며, 지금 저산에는 조선군이 몇십만인지 셀수 없는 만큼 군이 있으며, 노적봉에 쌓여있는 식량을 보시오, 이 물은 쌀을 씻는 뜨물이요 하며, 일본군을 교란시키고 그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물은 상천에서 석회를 타서 흘러보낸 물이었고, 물을 마신 왜군들은 복통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 후 왜군은 노적봉의 조선대군을 생각하고 바로 퇴각을 결정하고 후퇴하였다.

노적봉에 쌓인 쌀가마는 인근 주민들과 합심하여 새끼줄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노적봉을 둘러싸게 하였다. 그 후에도 북한산을 중심으로 인근 아낙네을 동원하여 아군들의 밥을 일일이 나눠주어서 이 지역을 지켜내게 되어 오씨 할머니를 밥 할머니로 부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고양시의 가보면 행주산성이 있는데 1593년 이 밥 할머니는 인근 마을에 부녀자 부대를 이끌고 행주산성의 아군을 돕기 위하여 북, 팽가리를 치며 산성으로 들어갔다. 그 치마로 돌을 운반하여 적과의 싸움에 대비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이야기를 들은 선조왕은 밥 할머니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에 석상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시대 초기에 일본인들이 밥 할머니의 석상을 내력을 알고서 석상 머리를 깨뜨려서 머리가 없는 불구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고 분이 안 풀인 이들은 석상을 땅 깊숙이 묻어 버렸는데, 이 밥 할머니의 석상을 8.15 해방이 된 후 뜻있는 누군가가 다시 찾아 세웠고, 지금은 고양시 삼손동 통일로변, 일명 숫돌고개 중턱의 도화공원 내로 1993년 옮겨져 있다. 하지만 지금도 머리 없는 석상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커다란 역사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밥 할머니의 의로운 활동에 대해 국가적인 발굴과 보존 노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애석합니다. 다만,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해마다 인근 마을 토박이 주민들이 햅쌀, 백설기, 햇과일 등을 차려놓고 제를 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뿐이다.

이 밥 할머니의 묘는 불광동에 최근까지 있었으나 1976년 자손들에 의해 화장해 모셔졌다. 화장당시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밥 할머니의 팔다리뼈가 무척 길어 6척 여장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 5 지점 총융사 선정비 및 북한산 승도절목 설명

- 중흥사지 못 미쳐서 현 응학사 아래 누각지 옆에 비석거리가 있다. 이 비석거리들은 북한산성을 관리하던 총융사 재임시 선정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대부분 1800년대의 것이며 애민 선정비, 청덕선정비, 영세불망비 등이다. 예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석이 있었다 하지만

일제시대와 6.25전쟁 등으로 많이 파손되고 약 21개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비석 중에는 지붕돌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옛날에는 「북한산승도절목」의 명문 바위 옆에는 무쇠로 만든 비가 서 있었는데 일제 때 무기를 만든다고 일본인들이 모두 빼어갔다 한다. 총융사는 현재 장관이나 차관급의 직급에 속한다. 이 비를 세우는 목적은 자신의 공로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직접 세운 게 대부분으로 큰 의미는 없다.

① 총융사신공헌애민선정비(總戎使申公憲愛民善政碑)

신헌의 선정비, 신헌은 1810년(순조 10) - 1888년(고종25) 사람으로 조선의 문신이며 외교가이고 예서를 잘쓰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나의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였다. 금위영 대장이 되어 1849년(철종 즉위) 헌종이 위독할 때 사사로이 의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병을 진찰한 죄로 섬에 유폐 안치되었다가 1857년 풀려났다. 1862년 통제사가 되고 1864년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다. 1866년 총융사로 병인양요때 강화의 염창을 수비하고 난이 끝난 후에는 좌찬성 겸 훈련대장을 지냈다.

② 총융사조공의복영세불망비(總戎使趙公義復永世不忘碑)

당시의 총융사 조의복의 영세 불망비이다.

③ 총융사김공병시청덕선정비(總戎使金公炳始淸德善政碑)

당시의 김병시는 1832년(순조 32) - 1898년(광무 2) 사람으로 본관은 안동, 판서 김응근의 아들이다. 1855년(철종 6) 정시문화(廷試文和)에 을과로 급제하고 1860년 이조참의를 지냈다. 1862년(철종13) 총융사 어영대장등 무관직에 있었으며 1870년(고종7)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후 이조판서, 호조판서를 거쳐 1882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잠시 재집권했을 때 지삼군부사가 되었다. 1884년(고종 21) 김옥균등의 개화당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수구당으로 이들과 대결, 청나라의 세력을 끌어들려 개화당을 몰아내고 사대당 중심의 내각을 조직하였다.

④ 총융사이공주철애민선정비(總戎使李公周喆愛民善政碑)

동치9년(1870) 10월에 세운 비인데 지금 용학사 축대 및 암반위에 있다. 이주철은 본관은 전주이며 조선의 무인이다. 1865년(고종2) 우포도대장으로 대원군의 경북중 증창때 영건도감제조를 지냈고 총융사를 거쳐 1868년(고종 5) 지삼군부사에 이어 금위대장을 역임하였다.

⑤ 총융사이공규철애민선정비(總戎使李公圭撤愛民善政碑)

용학사 축대와 암반위에 있다. 이규철은 조선의 무신으로 1858년(철종9)총융사가 되고 금위대장을 거쳐 1866년(고종3)병조판서에 올랐다. 대원군의 신임을 얻어 1868년 판삼군부사가 되어 척양(斥洋)정책을 뒷받침한 무신이다.

⑥ 총융사유공상량애민선정비(總戎使柳公相亮愛民善政碑)

용학사 축대 및 암반에 약간 기울어진채 서 있고 비를 세운 해는 도광12(1832) 9월이다.

⑦ 총융사이공경순애민선정비(總戎使李公景純愛民善政碑)

함평3년(1853) 10월에 세운 총융사 이경순의 선정비

⑧ 총융사김공문근청덕선정비(總戎使金公汶根淸德善政碑)

함평7년(1857) 1월에 세움. 김문근은 1801(순조1) - 1863년(철종14)의 사람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철종의 장인이다. 1814년 음보(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는것)로 감역이 된 뒤 현감을 지내고 1851년(철종2) 딸이 왕비로 책봉되자 영은부원군이 되었다. 금위대장, 총융사, 훈련대장등의 요직을 맡아 제2차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일익을 담당했다. 영돈령부사에 이르렀으며 후에 영의정에 추정되었다.

⑨ 총융사유공기상에민청덕선정비(總戎使柳公基常愛民清德善政碑)

광도26년 세운 비로서 유기상은 본관은 문화이며 음보(조상의덕으로 벼슬을 얻는것)로 여러 무관직을 역임하였다. 1842년 우포대장, 1844년 총융사, 1845년 금위대장, 1851년 좌포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⑩ 경리사겸선혜당상민공영준청덕선정비(經理使兼宣惠堂上閔公永駿清德善政碑)

광서 18년(1892) 6월에 세웠다. 민영준은 1852년(철종 3) - 1935년 사이의 사람인데 본관은 예흥이며 고종때 민씨 정치세력의 수령이다. 1877년(고종14)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내고 지돈령부사에 승진하였다. 1884년 김옥균등의 갑신정변을 진압 사대당 내각에 들어 갔고 1886년 참의내무부사, 도승지 이듬해에 주차일본판리공사를 역임하였고 이에 형조, 예조, 공조판서,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였다.

⑪ 총융사박공주수인덕애민선정비(總戎使朴公周壽仁德愛民善政碑)

도광 26년(1846) 8월에 건립된 박주수의 선정비이다. 비신이 단절되고 옥개석은 떨어져 있다.

⑫ 총융사홍공재룡애민청덕선정비(總戎使洪公在龍愛民清德善政碑)

함평 3년(1853) 5월에 건립된 홍재룡의 선정비이다. 홍재룡은 1794년(정조 18) - 1863(철종 14)에 산 사람으로 현종의 장인이다. 본관은 남양이며 1835년(헌종1)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대호군을 지내고 1844년 딸이 현종의 계비로 책봉되자 영돈령부사에 올라 익평부원군에 봉해졌다.

⑬ 총융사이공규원청덕선정비(總戎使李公奎源清德善政碑)

광서 10년(1884) 4월에 세운 이규원의 선정비이다.

이규원의 본관은 전주이며 무과에 급제하여 1877년(고종 14) 통진부사로 나갔다가 1881년 울릉도 검찰사가 되어 섬을 시찰하고 돌아와 울릉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왕에게 상주했다. 이듬해 어영대장 총융사를 거쳐 1884년 동남제도 개척사, 1891년 호군으로서 찰리사 겸 제주목사를 역임하고 한성부 판윤에 이르렀다.

⑭ 총융사김공기후애민청덕선정비(總戎使金公期厚愛民清德善政碑)

김기후(1747 - 1830)의 선정비로 도광 7년 (1827) 5월에 세워졌다. 김기후의 본관은 청풍이며 판돈령부사 김지묵의 아들이다. 1774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기용되어 영능참봉이 되고 1811년 총융사에 이어 금위대장, 공조판서, 지돈령 부사, 도총관, 한성부 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⑮ 무위제조겸도총사민공겸호애민청덕선정비(武衛提調兼都銃使民公謙鎬愛民清德善政碑)

민겸호(1838 - 1882)의 선정비로 광서 7년(1881) 윤 7월에 세웠다. 민겸호의 본관은 여흥이며 1866년(고종 3) 알성문과에 장원하여 민씨세도의 일원으로 권력을 잡아 여러 요직을 지내고 1872년(고종 9) 이조참판에 이어 형조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80년에 판돈령부사 총리기무아문이 신설된 후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대개혁이 실시되자 군무 변정 기연의 당상에 임명되고 이어 군무사경리

당상에 올랐고 이듬해 선혜청당상이 되었다. 이 때 별기군창설로 차별대우를 받던 구식군인이 임 오군관을 일으키자 강압책을 써서 이를 진압시키려 하다가 살해되었다.

○ 북한산승도절목 암각명문

비석거리에 또 하나의 귀중한 유적이 있다. 경사진 너른 암반에 북한승도절목(北漢僧徒節目)이라는 제목으로 319자가 새겨진 명문을 살펴보면 철종 6년(1885)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승도의 우두머리 격인 팔도도총섭의 교체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을 없애 산성 수호에 완벽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주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산 승도절목』의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산성은 국가 보장의 중지이다. 사찰을 창건하고 승도를 모집하는 것이 어찌 헛되이 그러는 것이겠는가, 즉 산성을 쌓아 수호하려는 뜻이거늘 최근에 승도가 잔멸하고 사찰이 피폐하여 조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인가, 대개 승도들이 질고 마른 것을 꺼리지 않고 힘을 다해 봉공하는 것은 장소에게 기대하는 바로서 오직 총섭(승군의 대장인 팔도총섭)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매번 그를 차대(후임자를 뽑아 빈자리를 채움)할 때 성외승으로 임명하려는 폐단이 많이 있으니 이로 인하여 승도들은 성을 고수하려는 뜻이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총섭을 교체할 때를 당하여 만약 정식을 밝게 펴서 영구함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어찌 승도들을 위로하여 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물며 수교정식은 정중할 뿐만이 아닌 것이니 그 받드는 것을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절목을 지어 바위 위에 새기니 이에 의해 준행할 것이며 결코 이루어진 법령을 어기지 말 것이다.

- 총섭이 비어 후임자를 뽑아 빈자리를 채울 때는 이번의 예에 의거하여 먼저 항통(관청에 설치하여 백성의 투서를 받던 통)을 받고 다시 권점(관원 임명의 방법으로 각기 자기가 뽑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 아래 찍는 등근점)을 행한 후에 점수의 많음으로서 시행하여 공평무사한 뜻을 알게 할 것.
- 이번에 이 정식을 천명한 후에 만약 성외승중에 그 임명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성내의 승도들이 수교정식과 이번의 절목을 들어 영문에 소송하여 그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번 정식(규칙과 격식)은 진실로 승도들을 위해 보장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므로 총섭은 이 마음을 알며 절의 폐단을 바로잡고 봉공하는 극진한 노력으로 앞으로 실효가 있게 할 것이다. 을묘(1855) 5월 일 사동 김 등

○ 산영루(누각터)

- 선정비들이 서 있는 곳에서 개울 쪽으로 10여개의 기둥같은 초석이 남아있다. 이곳을 성내 주민들은 산영루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에는 항해루는 중흥사 동구 개울 위에 걸쳐 앉은 언룡교 위에 지은 2층 다락집으로 성능이 창건하고 대제학 이덕수가 상량문을 지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초석은 화강암으로 네모난 돌기둥형으로 다듬은 것인데 가장 위면의

크기는 50cm 정방형이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 좁아져 안정감이 있다. 이 건물터는 개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넓은 암반위에 자리하였는데 개울쪽 기둥 높이는 205cm에 이르고 뒤쪽 기둥 높이는 70cm에 불과하다. 이 건물이 있는 개울은 넓은 암반과 폭포와 깊은 담이 연이어 있어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 누각터 건너에 있는 바위에는 안사 심상훈 김성근이라 새긴 명문이 보이고 그 왼쪽에는 총융사 김공기석청덕선정비라고 새겨있다.

제 6 지점 중흥사지 및 태고사

☆ 중흥사지

- 장군봉과 등청봉 남쪽 기슭에 있다. 중흥사의 창건연대는 잘 알 수 없으나 고려 말 고승 보우(普遇)가 중창하였다. 북한지에 의하면 1713년 축성시에는 30여칸의 퇴락된 사찰이었으나 이를 증축하여 1715년(숙종41) 136칸의 큰 사찰이 되었다. 중흥사는 북한산성의 수비를 위한 승군의 대장인 팔도도총섭겸승도대장 휘하의 승군 군영이 설치되어 있었다. 왕명으로 8도의 사찰에서 1년에 6차례에 걸쳐 의승을 뽑아 오리게 하여 북한산의 11개 사찰에 주둔시켰다. 승군의 정원은 360명이었다. 그 후 중흥사는 1828년(순조 28) 대응전과 만세루를 증건하여 일제초까지 북한산성 제일의 대찰로 존속하였으나 1915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중흥사지는 단을 지운 4단의 석축단으로 구성되어 남쪽으로부터 올라가면 첫째 석축은 높이 약 6m이며 그 위에 좌우 약 58m 남북 약 23의 대지가 있다. 둘째단 석축은 높이 약 2m로 쌓았는데 남북이 약 10m이며 세 번째 석축은 높이 약 3m의 높이를 쌓았는데 남북 폭이 약 11m의 대가 있다. 네 번째 단은 높이가 약 5m쯤 되고 그 위에 넓은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한지」에 의하면 중흥사 앞에는 중창과 제류 상에는 작은 다리가 있고 그 위를 덮은 상영루가 있었다.
- 김시습은 1455년 이 절에서 공부하다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책을 태워 버리고 승려가 되어 이름을 설잠이라 하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 1915년 산사태 재건할 때 다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 태고사

- 태고사는 중흥사의 부속 암자로서, 보우가 1341년 삼각산 중흥사의 주지로 있을 때 개인의 수도처로 창건한 후 동암이라 하였다. 태고암이라 부르게 된 것은 보우가 입적한 후부터이다. 보우는 이곳에서 태고암가를 지어서 더욱 유명하다. 중흥사 동쪽 가파른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일찍이 고려의 고승 원증 국사는 호가 태고 또는 보우로서 동쪽에 태고암을 세우고 기거하면서 설법을 강론하고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다. 태고암은 잦은 난으로 황폐된 것을 숙종 39년 승성 능이 131칸으로 중창하며 태고사로 칭하였다. 그러나 북한산성의 대대적인 불사 신축 때 현존하는 사찰로 중흥사 1개소만 거론한 것을 보면 축성 당시에는 소멸되었던 모양이다. 경내에는 서산 대사 휴정의 청허시를 담은 현액과 영조의 친필 현액이 있는 등 유서깊은 사찰이었으나 한국 전쟁을 전후한 혼란기에 퇴락하여 붕괴된 채 잡초더미에 묻혀 있다가 김청암 현주지에 의해

1968년 대웅전과 산신각을 재건하였고, 요사는1990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고사 문화유적은 경내 원증국사탑비는 고려 우왕 11년(1385)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이색이 썼으며, 보물 제611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내용은 원증국사의 출생부터 입적에 이르는 내력을 적은 것으로, 비문 가운데에는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로서 이 비를 세우는데 참여하였음을 보여 주는 ‘판삼사사 이성계’란 글이 새겨져 있다. 또한 절 뒤 산등성에는 보물 제749호로 지정된 높이 4m의 화강암 3층석탑이 우아한 자태로서 있다. 이 탑은 원증 국사의 부도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기에 도굴되어 30여년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으며 이때 꼭대기의 보주와 탑신부의 옥개석이 일부 훼손되었다. 건립 연대는 원증국사탑비와 비슷한 시기로 추측되나 도굴된 것을 차례로 올려놓을 때 제대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여 점차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경내에는 5층 석탑이 있었다 하는데, 일제시대에 경서 헌병대로 옮겨간 뒤 그 소재를 알 길이 없다.

제 7 지점 행궁지

태고사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상원봉 밑에 행궁지가 있다. 행궁이란 왕이 전란시 몸을 피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별궁으로 이궁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산성의 행궁은 상원봉 자락에 터를 잡았다. 이 행궁은 1712년(숙종38) 5월에 준공된 후 잘 유지되어다가 1900년대에 와서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 행궁의 규모는 130여칸의 건물이었으며 작은 연못자리와 샘물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행궁의 방형초석과 담장터가 정연하게 남아있고 후원 바위에 괘중암이라 생긴 명문도 있다. 행궁지는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한다면 좋은 유적이 될 것이다.